

연금시장리뷰 48 호

개인재무설계의 이해와 연금제도의 활용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최승우 전무, 경제학박사, (02-3276-7603, swchoi@fpsbkorea.org)

□ 개인재무설계의 이해와 연금제도의 활용

미국에서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가 태동한 지 꼭 40 주년이 되는 해인 2009 년에 필자는 미국 재무설계협회(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이 주최한 연차회의(Annual Conference)에 다녀왔다.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곳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Anaheim)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초청인사, 재무설계 실무자 등 약 4,000 명이 참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재무설계 도입 40 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리셉션이 개최되었고 이 때 그동안 재무설계의 발자취를 정리한 책인 “재무설계의 역사”를 저자들이 직접 사인하여 참가자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재무설계가 처음 태동한 1969 년은 아폴로 11 호의 우주인이었던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던 바로 그 해다. 당시 미국경제는 월남전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전비충당을 위한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다. 이 때만해도 대공황 후 제정된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 의해 금융권역 별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탄력적이고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69. 12. 12 시카고의 오헤어공항 근처에서 뜻있는 13 명의 뜻있는 금융전문가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설계의 개념에 대한 최초의 논의를 하는 역사적인 회합을 가졌다. 그 후 재무설계사 육성과 배출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재무설계사들의 모임을 위한 기구가 탄생하고 전문적인 자격인증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격제도의 국제표준화, 업무수행기준 도입 등 이후 일련의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재무설계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1969. 7. 20 달에 내려 첫발을 내디디며 암스트롱은 감격에 벅찬 목소리로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라고 달 위에서의 일성을 지구에 전해왔다. 시카고 공항에 모였던 13 인에 의한 재무설계의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암스트롱이 달 위에서 내디뎠던 첫 걸음처럼 Small step 에 불과했지만 현재 전세계 24 개국에서 약 135,000 명의 재무설계사들이 활동하는 금융전문직으로 발전하는 Giant leap 를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재무설계 도입 역사는 아직 10 여 년에 불과하다. 지난 2000 년 한국 FP 협회와 미국의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Board, Inc.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교육, 자격인증, 배출, 소비자를 보호하고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재무설계의 폭넓은 확산 보급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보호되고 Financial Wellbeing 달성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Giant leap 를 기대하면서, 필자는 이 글에서 개인재무설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재무설계를 필요로 하는 환경적 변화요인, 재무설계의 프로세스, 재테크와의 차이점 등 재무설계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와 재무설계에서 효율적인 연금제도 활용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 개인재무설계의 이론적 배경

○ 3대 경제주체

-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경제주체라고 하는 데 일국의 국민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의 3대 경제주체로 구성되어 있음
 -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얻는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로서 효용극대화를 추구
 -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창출된 이익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고 가계에 임금을 지급
 - 정부는 가계 및 기업으로 구성되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조정, 규제하는 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제주체로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경제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을 정부부문은 재정학(Public Finance), 기업부분은 기업재무관리(Corporate Finance), 가계부분은 개인재무(Personal Finance)라고 함
 - 재정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기업재무관리는 경영학의 한 분야로, 개인재무는 주로 소비자경제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옴
 - 개인재무분야는 정부의 재정학이나 기업의 재무관리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퇴직 추세 등 사회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로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 개인재무설계의 정의

- 개인재무의 정의
 - 개인재무(Personal Finance)란 개인 또는 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가는 데 필요한 현금흐름(Cash Flow)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Financial Wellbeing 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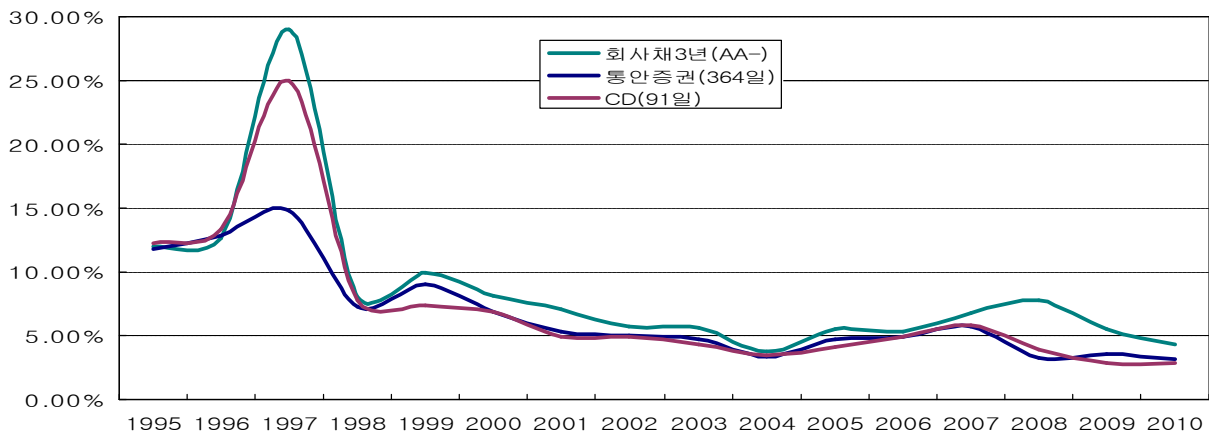
- 개인재무설계란?
 -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란 개인재무의 확장된 영역으로 개인재무문제의 분석과 의사결정을 다루는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소비 및 저축, 투자, 자금관리(financing), 위험관리의 4 가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미국 CFP Board 에 의하면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란 실무적으로 개인에 대한 적절한 재무관리를 통해 생애목표(Life Goal)을 달성해나가는 과정(process)로 정의됨
 - 여기에서 생애목표를 달성해나간다는 것은 재무설계 범위가 재무적인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까지 확장하여 총체적인 인생의 목표까지 포함한다는 의미
 - 또한 재무설계는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 중개하는 것과는 달리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평생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지칭함

II. 재무설계를 필요로 하는 환경적 변화

○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기에 두 자리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1990 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 5 년간(2006-2010) 평균 GDP 성장률은 3~4%에 머물러 경제의 안정 저성장세가 두드러짐

<금리의 변동추세>



자료 : 한국은행

- 잠재성장률도 1986-1990 의 5 년간 평균 10.1%에서 2006-2010 의 5 년간 평균 3.0%로 하락.
 -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투자감소, 5 일제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노동시간 축소,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등에 기인
-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돌입하면서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해져 본격적인 저금리시대에 돌입
 - 90 년대 중반만해도 3 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은 10% 이상을 기록
 - IMF 위기 때인 1997 년에 29%까지 일시적으로 급상승했으나 그 이후 하향안정세로 반전 되어 본격적인 저금리시대에 돌입
- 고성장·고금리 시대에는 저축성 예금 등 안전자산에 저축만해도 연 10%이상의 고수익을 누릴 수 있었음
 - 그러나 현재는 저축성 예금금리가 5%이하로 낮아져 이러한 수익률로는 주택구입자금, 자녀교육자금, 은퇴자금 등을 마련 등의 중장기적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갭이 존재함
 - 고성장·고금리시대에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운용해도 자산증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투자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이는 저축의 시대가 투자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므로 재무설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이 긴요해짐

○ **고령화 시대의 도래**

- UN 인구통계 기준을 보면 한 나라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Supe-Aged Society)로 분류됨
 - 한국은 1970 년에만 해도 65 세 이상 인구비중이 3% 내외였으나 2000 년 7%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향후 2018 년에 달해 고령사회, 2026 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50 년에는 65 세 이상 인구비중이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노후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재무 설계로 젊어서부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해나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65 세 이상 인구>

	2000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고령인구비율(%)	7.2	11.0	12.9	15.6	19.9	24.3	32.5	38.2
고령인구(천명)	3,395	5,357	6,381	7,701	9,768	11,811	15,041	16,156

자료 : 통계청

○ **금융환경의 변화**

- Universal Banking 시대 도래
 - 대공황 직후 1933년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제정 이후 금융산업은 권역별 분업주의 형태를 유지해왔으나 1999년 상업은행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업은행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겸업주의 형태로 변화
 -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산업 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1년 보험법 개정으로 보장성, 저축성, 뮤추얼펀드 형식이 혼합된 변액연금 상품이 도입되어 보험사에서 투자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03년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제도가 시행되어 부분적 겸업이 가능해졌음
 - 특히 2009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 선물사, 종금사, 자산운용사, 투신사 등이 기능별로 통합되어 소비자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투자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졌음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종전의 분업주의적 금융산업이 겸업주의적 금융산업으로 변화하면서 Universal Banking시대가 도래하여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One-stop banking 금융서비스가 요구됨

- 금융의 자유화, 규제완화, 글로벌화 추세
 - 1980년대 들어 세계 금융산업은 폭넓은 규제완화(deregulation) 추세 속에 금융의 자유화(liberalization)가 촉진되고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T)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금융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됨
 - 1986년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금리의 상한선을 규제하던 Regulation Q가 폐지된 후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3단계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어 정부의 규제를 받던 90년대 말까지 여수신 금리가 사실상 완결되었음
 - 한편 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하에서 유지되어온 미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가 1971년 닉슨의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선언으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됨
 -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 환율제도로 변천되어 왔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1일 변동폭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어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환위험이 크게 증가함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취급불가 상품을 예외적으로 예시하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어 신 금융상품 개발이 한층 더 용이해짐
 - 금융상품 판매채널도 종전에는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직접 운용하는 제판일치 형태였으나 브로커나 딜러가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거나 독립적인 금융회사들이 판매를 담당하는 제판분리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었음
 - 이상과 같은 금융의 자유화, 규제완화, 자유변동환율제도,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방식, 판매채널의 혁신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로 종합자산관리 능력과 상품평가능력, 높은 윤리의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상담에 기초한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III. 재무설계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

○ 재무설계사의 자격요건과 업무수행 기준

-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서비스는 FPSB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본부가 전문성 및 윤리성에 입각하여 제정한 엄격한 4E(Education, Examination, Experience, Ethics)의 국제기준에 의거 인증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들이 제공하는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임
-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미국의 CFP Board가 제정하고 FPSB 국제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기준임
 -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우선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Where I am now)를 분석하여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Where I am going for the future)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을 메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피드백(Feedback) 시켜 나가는 과정임

- 따라서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수행 기준이며 표준화된 프로세스 없이 상품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개념상 차이점

<재테크와 재무설계>

구 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 표	투자수익률 극대화	SMART 목표
범 위	투자설계에 국한(나무)	종합적인 재무서비스(숲)
투자전략	Market Timing	자산배분에 의한 분산투자
재무적 관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 간	단기위주	중장기
시장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경제예측
돈과의 관계	돈에 구속	돈으로부터 자유

- 재테크의 목표는 자산증식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인 반면 재무설계의 목표는 SMART한 재무목표 즉,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실현가능 (Attainable) 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시간이 설정된(Timed) 목표이어야 함
- 재테크는 투자설계에 국한된 것이라면 재무설계의 범위는 투자설계, 은퇴설계, 보험설계, 세금, 상속설계, 부동산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임. 재테크가 한 그루의 나무라면 재무설계는 숲에 비유될 수 있음
- 재테크에서 투자전략은 몰빵투자와 매입•매도 타이밍(Market Tim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재무설계에서는 자산배분전략(Asset Allocation Strategy)에 의한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재테크는 투자로부터 얼마를 벌고 얼마 손실을 보았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재무설계는 단순한 손익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재테크의 투자기간은 주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가 주종을 이루나 재무설계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은퇴설계와 같은 재무설계는 수십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됨
- 재테크에서 시장분석 방법은 차트, 이동평균선, 추세선과 같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무설계에서는 산업분석, 기업의 내재가치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방법과 중장기 경제 및 시장예측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더 중시함
-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는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 돈에 종속되기 쉽지만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돈 그 자체보다는 삶의 본질이나 가치를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됨

IV. 연금제도와 재무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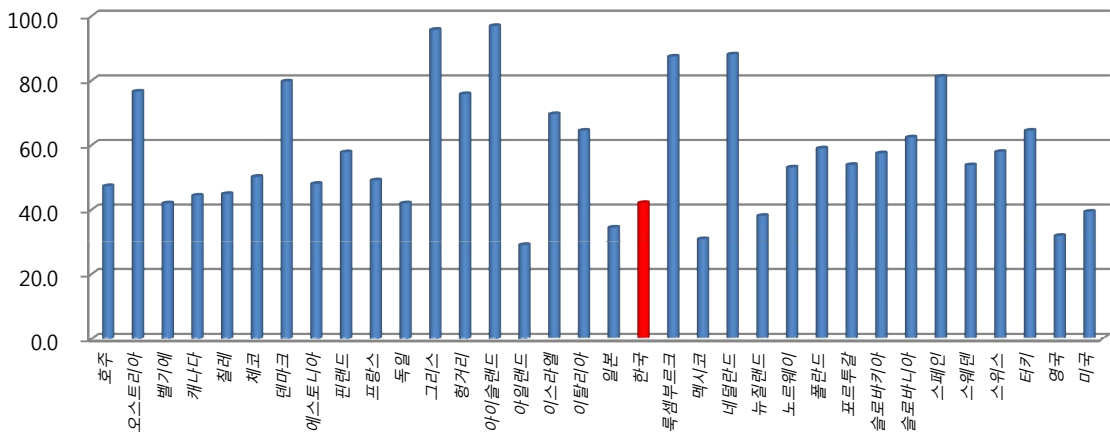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구조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3층보장제도 (Three-Tier Security Scheme) 구조를 가지고 있음
 - 1층 구조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 연금제도로써 국가가 일반 개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보다 신뢰성이 있고 수령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해 실질적인 화폐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2층 구조인 퇴직연금은 개인이 소속된 기업이 종업원의 표준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종전에 일시금이나 중간정산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업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3층 구조인 개인연금은 개인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더하여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자기보장 성격의 연금제도임. 개인 스스로가 민간 금융회사에 가입하고 노후에 그 운영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됨.

○ 우리나라 3층 보장제도의 실상

- 우리나라의 3층 보장 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2001년 세제적격 개인연금 도입,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구조가 비로소 확립됨
 -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연금소득을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은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 57.3%에 훨씬 못 미치며 이는 34개 회원국 중 26위로 해당되는 것으로 하위권에 속함

<OECD 회원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자료: OECD

- 또한 고령화 속도, 저소득층 비율, 연금 소득대체율, 은퇴 후 생존기간 등을 중심으로 각종 수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노후대비지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을 100점으로 했을 때 47점으로 평가됨
- 미국 128점, 영국 125점 등에 비해 매우 낮고 일본도 74점에 달한 바 이 자료로부터 우리나라의 노후대비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노후지수가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악화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의 지속적 하락,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 미흡, 퇴직연금 제도의 짧은 역사, 개인연금 제도의 비활성화 등에 기인함

<노후대비지수 국가별 비교>



자료 : 보험연구원

○ 재무설계에서 연금제도의 활용

- 3층 보장 연금제도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원천(Income Resource)을 제공해주는 한편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고령화사회 급진전에 따른 장수위험 (Longevity Risk)에 대비하는 데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연금제도의 충분한 활용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체계적인 연금설계는 성공적인 재무설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들도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조기가입을 서둘러야 함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초기에는 70%였으나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재정악화로 2028까지 4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분적인 노후대책만 가능함
- 따라서 표준적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과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은퇴 후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퇴직연금 가입시 임금인상률, 연령, 직급, 잔존근무년수, 예상투자수익률, 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함. 특히 확정기여형 (DC)으로부터 확정급여형(DB)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신중을 요함
-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장일 경우 DB제도가 유리하고,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고용안정이 취약하고 급여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에는 DC제도 선택이 선호됨

- 초기에 DB를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개인별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하게 되는 시점에서 DC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퇴직연금에는 수많은 선택사항이 존재하므로 자산운용과 상품선택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개인별 위험수용수준(Risk Tolerance)에 맞게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하고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일시금이나 재직 중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A)에 편입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 국민연금,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3층 보장 제도로부터 전 은퇴기간 동안 노후자금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고 금년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세제측면에서 유리한 상품임
 - 그러나 개인연금은 절세를 위한 투자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지만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소득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함

V. 맺음말

○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

- 투자의 시대, 고령화 시대, Universal Banking 시대에 재무설계는 Financial Wellbeing을 통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재무설계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부의 축적의 정도, 소득수준, 직업, 나이에 관계 없이 미래를 계획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함

○ 연금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 3층보장 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서 은퇴 후 이로부터 충분한 실질 소득대체율이 담보되어야 재무적으로 안전한 성인후기를 살아갈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3층보장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노후준비지수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연금제도의 효율적 활용이야말로 성공적 재무설계의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들은 충분한 연금소득 확보와 장수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민소득의 임의가입, 퇴직연금 제도의 합리적 선택, 노후보장 차원에서 개인연금 가입 등을 서둘러야 함

○ 가계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재무설계

- 재무설계사들은 개인(가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가계경제의 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최승우, 경제학박사, 한국 FPSB 전무 (02-3276-7603, swchoi@fpsbkorea.org)